

## 윤수정-정한수

윤수정 (싸늘하게) 여자 친구라던데?

정한수 (얼굴을 찡그리며) 누구한테 들었는데?

윤수정 연기과에서...

정한수 (윤수정의 말을 끊으며) 너 이제 내 뒷조사까지 하나?  
진짜 소름 돋는다. 누구한테 들었는데? 김도영? 김동규?  
넌 나보다 개네를 더 믿어? 그럴거면 나를 왜 만나?

윤수정 (감정을 억누른 표정을 짓는다. 눈에서는 눈물이 고인다) ....

정한수 개네가 뭐라디? 최지원이 내 여자친구? 그래. 예전에.  
지금은 일방적으로 집착하는 거고.

윤수정 (울 것 같은 눈으로 정한수를 바라본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아니...

정한수 (그런 윤수정을 보며) 안 그래도 짜증나는데 너까지 집착하냐?  
지금 니가 하는 게 싸우자는 거밖에 더 돼? 아니다,  
(허탈한 듯) 믿음을 못 준 내 잘못이지. (윤수정을 보며) 미안하다.

윤수정 (눈물을 뚝뚝 흘리며) 내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 미안해...

정한수 (윤수정을 한심하게 쳐다보다가 한숨을 쉬며 눈물을 닦아준다) 그러니까.  
왜 그런 짓을 해. (윤수정의 눈을 마주치며) 진정되면 연락해.

## 윤수정-최지원

윤수정 (굳은 목소리로) 우리 오빠 왜 따라다녀요?

최지원 갑자기 윤수정의 손을 두 손으로 잡는다.

최지원 (어이없다는 듯이) 정한수가 그래요? 제가 따라다닌다고?

윤수정, 최지원을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바라본다.

윤수정 다신 눈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최지원 (단호한 목소리로) 잠깐만요.(윤수정의 팔을 붙잡는다)

윤수정,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다 다시 앉는다.

최지원 정한수한테 제 얘기 좀 그만하라고 전해주세요

윤수정 네? 무슨 얘가요?

최지원 (화를 참는 듯이) 지금 개 때문에 이상한 연락이 와요.